글 이윤미 사진제공 구글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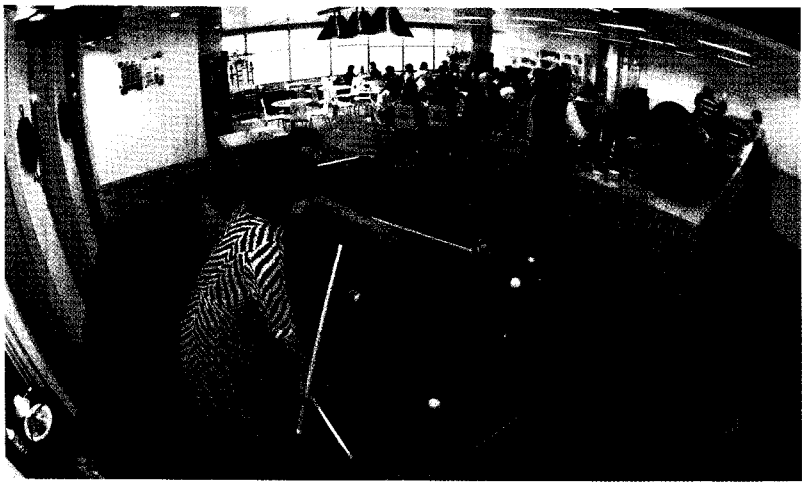
자유로운 사내 분위기 구글코리아 건강도 창의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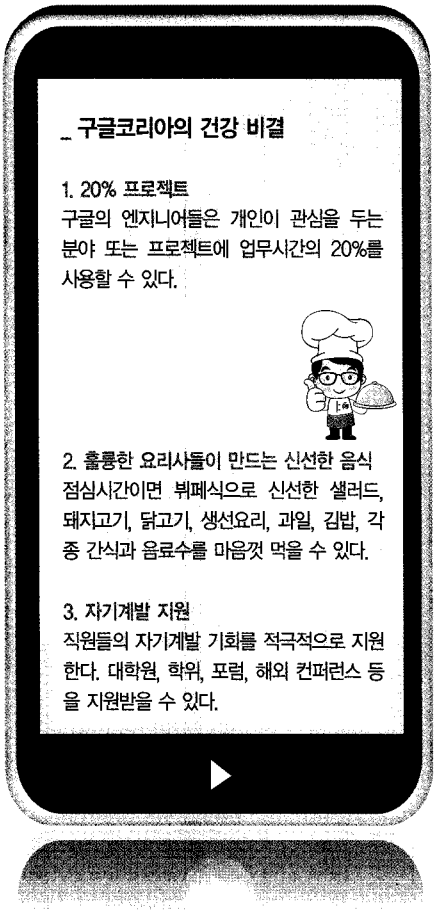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2층에 위치한 구글코리아. 세계 최대 검색 기업인만큼 치열하고 분주한 일상이 펼쳐질 것 같은 구글의 일터는 회사라기보다 대학교와 유사한 분위기다. 카페테리아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점심시간이면 당구대와 미니 축구게임기 앞에서 모여 게임을 즐긴다. 직원들의 건강을 위한 마사지 프로그램은 전 세계 구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

구글코리아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 카페테리아에서 음식을 먹으며 사소한 것부터 기술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열린 대화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 내 엄격한 상하구분도 없고, 형식적인 옷차림도 없다. 기업에서의 관행적인 직함이나 나이에 따른 차별적 혜택이 전혀 없는 수평적 관계다. 따라서 모든 직원이 받는 복지혜택의 수준도 같다.

구글코리아의 창의성과 혁신성을 이끌어내는 힘은 근무환경에서 나온다. 특히 형형색색 알록달록하게 꾸며진 카페테리아는 직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돕는다. 24시간 무료로 운영되는 이곳엔 음료수, 우유, 피자, 빵으로 가득한 2대의 냉장고와 두 종류의 커피머신, 신





선한 과일과 수십 종의 간식거리로 가득한 미니 주방, 당구대, 미니 축구게임기 등이 있다. 이러한 음식 문화는 직원들을 열심히 일하게 하려는 대가성 혜택이 아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회사의 감사 표현이다.

그 외에도, 자전거처럼 공해를 만들지 않는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직원에게 마일리지에 따라 혜택을 주는 도네이션제도와 함께 직원들의 출퇴근 대중 교통비를 지원한다. 경조사 지원도 특별하다. 아이를 낳은 산모는 식사가 불편하기 때문에 50만 원까지 식사 배달을 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아버지에게는 2주 유급 출산 휴가를 준다.

인터넷에 대한 시각을 혁신적으로 바꾼 검색 엔진

구글의 공동 창립자인 래리 페이지(Larry Page)는 "완벽한 검색 엔진이란 사용자가 뜻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원하는 결과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엔진."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구글은 혁신적인 기술을 끊임없이 추구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속, 정확하게 편리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에는 10가지 웹에 대한 철학이 있다. ●사용자에게 초점을 맞추자.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자. ●느린 것보다 빠른 것이 낫다. ●웹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한다. ●데스크탑에서만 검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부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 ●정보는 무한대다. ●정보 요구에는 국경이 없다. ●꼭 정장을 입어야만 진지하게 업무에 임하는 것은 아니다. ●최고에 만족하지 말자.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구글은 인터넷에 대한 개인, 기업 및 기술자들의 시각을 혁신적으로 바꿔왔다. MEDI CHECK